

전남도, 지방선거 대비 합동지원상황실 운영

선관위·행정안전부·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운영 돌입 공직기강 확립·SNS 집중 감찰 등 공명선거 본격 대응

전남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선거가 이뤄지도록 본격적인 대응 및 지원에 나섰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시·도지사과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시군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도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선거 추진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거소투표 신고·접수,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투·개표소 설치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와 시군,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유권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하도록

투표소의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경비·소방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권도 보장하도록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출마선언과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개소 등이 속속 진행되는 등 선거일을 2달 남짓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선거 방지 및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에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SNS 활동 위반사항 등을 집중 감찰한다. 선거 개입 및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가 치러지도록 법정 선거사무 이행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투표소 방역관리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도민께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가정으로 전송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전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슬기로운 청년생활백서’ 발간

일자리·주거 등 4개 항목 107개 사업 담아



광주시에 청년정책과 일자리정보 등이 담긴 청년정책안 내서 ‘슬기로운 청년생활백서’ 2000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슬기로운 청년생활백서’는 광주시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청년정책 정보가 총정리 돼 청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청년안내서로,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책자는 ▲일자리 ▲주거 ▲교육 역량강화 ▲복지·문화 등 4개 항목, 10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8일까지 지역 청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카페, 대학 일자리센터, 97개 행정복지센터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책자의 온라인 버전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 청년정책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서선옥 기자

“화합의 순천을 만들 것” 노관규 전 순천시장 출마선언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지난 1일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4일 연향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순천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제는 나이와 생각이 원숙해진만큼 화합과 통합의 순천을 만들겠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출마전 지역을 돌며 “시민들이 바라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면서 “도덕성에 허자 없는 깨끗한 사람, 어디 내놓고 우리 시장이라고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 순천이 어디로 가야할지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해안과 결단력 그리고 강한 추진력이 있어 순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능력 있는 시장,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주요 공약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완성)과 (통합 메가시티 준비)를 제시했다. 노관규 예비후보는 소득 수준 3만불과 세계의 환경수도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모델 삼아 생태수도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했으나 지금은 많은 부분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있다며, 일을 시작한 자신이 인력, 예산 시간의 낭비없이 생태수도전략완성을 통해 “세계의 유명도시들과 경쟁하는 일류 순천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근 도시(광양, 여수, 구례, 고흥)들과 기능재편을 통해 서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까운 시기에 통합메가시티로 나아가길 디딤돌을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조선대병원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 성공...위암 치료

류성엽 외과과장, ‘다빈치 Xi’로 첫 수술



조선대학교병원이 최첨단 4세대 수술장비인 ‘다빈치 Xi’를 활용한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조선대병원은 류성엽 외과과장이 최근 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Xi’로 첫 수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류 외과과장은 50대 여성환자의 위에 발생한 암을 제거하기 위해 ‘다빈치 Xi’를 이용했으며 원위절제술과 위·공장 문합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다.

수술과정에서 류 외과과장은 넓어진 시야와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을 제공받았으며 경량화된 4개의 로봇팔 등으로 위암을 안전하고 정교하게 치료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환부를 절개하지 않고

김재환 기자

석 달째 맞는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상가 보상 장기화

영업 손실 상가 131곳 중 6곳만 합의·보상 주상복합 내 도매상 등 41곳 신청도 안 해 “직접 사과부터...터무니 없는 보상금액”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석 달째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 주변 피해 상가 보상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 주변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해당 상가가 영업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하루 단위 손실액을 바탕

으로 면담을 거쳐 합의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합의서를 작성한 상가부터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상가는 131곳으로 잠정 집계된다.

무너진 201동 건물과 인접한 주상복합건물 입점 도매상가 58곳, 붕괴 사고 직후 안전문제로 출입통제구역 내 상가 44곳, 통제구역 밖 근접 상가 29곳 등이다.

이 가운데 주상복합 도매상가 19곳이 손실 보상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중 6곳은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보상을 지급 받았다. 나머지 상가 39곳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보상 절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낙하물 추락 위험 우려

탓에 출입 통제 구역 설정된 주변 상가 44곳 중 42곳은 피해 보상을 접수했다. 대부분 관련 서류 제출까지 마쳤으나, 2곳은 보상 합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제 구역 밖 주변 상가 29곳은 모두 손실 보상을 신청,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보상 협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가는 41곳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하는 보상 절차·협의안을 거부하는 상가 측에선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홍석선 상가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도의적으로라도 반드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상인들이 집단 상경해 사죄 촉구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금진흥재단
Korea Pension Fund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늬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순위 |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
| 1순위 | 26,697원 |
| 2순위 | 48,103원 |
| 3순위 | 79,147원 |
| 4순위 | 125,531원 |
| 5순위 | 240,833원 |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립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